

## 적절한 벤조다이아제핀 사용 지침

김 찬 형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아마도 1960년대 이후 정신질환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물은 바로 벤조다이아제핀일 것이다. 벤조다이아제핀은 다양한 불안장애에 1차 약물로 사용되고 있으나, 1980년대 이후 장기 사용 시에 남용 가능성과 신체적 의존 등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논란은 벤조다이아제핀을 대체할 만한 약물이 아직 개발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기인되고 있다.

벤조다이아제핀을 임상에서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장기처방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벤조다이아제핀은 장기 사용시 상당수의 환자에서 내성이 발생하며, 또한 중단 시에는 금단증상이 흔히 나타난다. 따라서 벤조다이아제핀 사용을 시작할 때는 환자에게 미리부터 이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다. 대부분은 환자들은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해 약물의 불필요한 장기사용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현재 알코올의존이나 약물남용으로 진단되거나 과거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는 처음부터 벤조다이아제핀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물론 여기에는 아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알코올 금단증상을 예방하기 위해 벤조다이아제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금단증상의 위험이 없다면 바로 벤조다이아제핀을 중단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벤조다이아제핀 사용 시에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원칙들은 발표에서 논의될 것이다.

최근 벤조다이아제핀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여러 학자나 임상의를 통해 제시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 약물을 복용하고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지내는 환자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 그리고 아직 벤조다이아제핀을 능가할 만한 내약성이 우수하고, 효과가 빠른 약물이 없다는 사실은 무분별하게 이 약물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벤조다이아제핀을 더욱 잘 이해하고 적절히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